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죽음준비 영향 요인: 2014 노인실태 조사 활용

이가언¹, 전해정^{2*}, 유정옥¹
¹동아대학교 간호학과, ²동아대학교병원

Factors Contributing to Death Preparation in Community-Dwelling Elderly: Using Korean National Survey on Elderly 2014

Ga-Eon Lee¹, Hye-Jeong Jeon^{2*}, Jung-Ok Yu¹

¹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²Dong-A University Hospital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죽음준비 실태와 영향 요인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4년 3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이차자료 분석연구로 대상자는 10,281명이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3.0 program을 이용하여 χ^2 -test, t-test, 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37.7%가 죽음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준비 유형은 묘지 준비, 수의 마련, 상조회 가입, 죽음준비교육, 유서작성 순이었으며, 정신적 죽음준비에 비해 의례적 죽음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죽음준비 영향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결혼상태, 경제수준, 활동 제한과 삶의 만족도로 확인되었다. 여성 노인인 경우(CI=1.02-1.25), 연령이 많을수록(CI=1.90-2.28), 동지역보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CI=1.21-1.45), 학력이 높을수록(CI=1.16-1.42), 미혼, 이혼등의 경우에 비해 배우자가 있거나(CI=1.50-3.22) 사별한 경우(CI=1.58-2.84),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CI=1.13-1.36), 활동 제한이 있을수록(CI=1.11-1.40)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CI=1.17-1.35), 자녀와의 관계가 만족할수록(CI=1.25-1.43), 친구 및 지역사회에 만족할수록(CI=1.10-1.28) 죽음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관련 기관에서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정신적 죽음준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노인의 성별, 거주지역 등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atus an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death preparation of in Community - Dwelling Elderly. This study was secondary analysis using with 2014 National Survey on the Elderly in Korea. The number of respondents were 10,281. Data were analyzed with the χ^2 test, t-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using the SPSS/WIN 23.0 program. 37.7% of respondents had done death preparati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death preparation were sex(CI=1.02-1.25), age(CI=1.90-2.28), living area(CI=1.21-1.45), education level(CI=1.16-1.42), spouse status(CI=1.50-3.22), economic level(CI=1.13-1.36), limit of activity(CI=1.11-1.40), life satisfaction(economic satisfaction(CI=1.17-1.35), children relationship satisfaction(CI=1.25-1.43), friends and neighborhood relationship satisfaction(CI=1.10-1.28)).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for reinforcing elder's psychological death preparation for elders in community organization. To consider elder's characteristics like gender and living area.

Keywords : elderly, death preparation, Psychological Readiness for Death, Physical Readiness for Death, Life Satisfaction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Hye-Jeong Jeon(Dong-A University Hospital)

Tel: +82-10-4596-3692 email: junhj70@hanmail.net

Received May 2, 2018

Revised May 31, 2018

Accepted August 3, 2018

Published August 31,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이 삶의 마지막에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죽음에 직면한다는 것은 누구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며 이러한 두려움은 젊은이들보다 죽음에 더 가까이 있는 노인들이 더욱 많이 느낀다[1].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죽음준비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뿐 아니라, 현재 삶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있어 죽음의 질 뿐만 아니라, 현재 삶의 질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2]. 따라서 노인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두려움과 공포가 줄어들 뿐 아니라, 노인들의 삶의 방식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3]. 특히 노인들에게 죽음준비교육은 우울과 죽음불안[2,4,5-10]을 낮추며, 생활만족도를 높이고[3-4,10-11] 성공적 노화로써 자아 통합감을 높이며[5-12]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3,5-6]. 이러한 죽음준비에 대한 교육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종교단체나 사회복지시설 등 대부분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다[13].

선행 연구에서 죽음준비는 정신적(심리적) 준비와 의례적(물질적) 준비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다[4-5]. 정신적 준비는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로써 자신의 유한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심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5]. 이에 대한 준비는 자서전 쓰기, 죽음에 대한 영상물 관람, 장묘 시설 견학, 장기 기증과 호스피스 교육과 같은 죽음준비 교육 등이 해당된다[1,10]. 반면 의례적 죽음준비는 노인들이 좋은 죽음을 위해 행동으로 취하는 형식적이거나 행위적인 준비로서 유언, 유산, 장례 유형과 수의 준비 등과 관련된 것이다[4].

지금까지 노인들의 죽음준비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죽음준비도를 영향변수 또는 매개변수로 가정하여 노인들의 자아존중감과 내세관[14], 삶의 만족도[3-4,15], 성공적 노화[8,16]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렇듯이 죽음준비가 노인들의 삶에 중요한 요인이라면, 이들을 대상으로 죽음준비 실태와 그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들의 죽음준비에 대한 연구는 Kim 등[4]이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과, 베이비부머와 예비노인을 비교한 Chung 등[2]의 연구 등 매우 미비한 실태이다. 또한 노인들의 죽음준비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 지역에서 일부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거나 일부 변수와의 관련성만을 다룬 것으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실태와 관련 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죽음준비 실태와 그 영향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추후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의 죽음준비 대책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준비 실태와 그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죽음준비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라 죽음준비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죽음준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죽음준비 실태와 관련된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이차자료 분석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원시자료 사용에 대한 요청은 해당기관에 2016년 7월 20일하였으며, 익일인 21일 승인을 받아 자료를 취득하였고, 송부된 자료에는 대상자의 인적 정보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는 전국 16개 시, 도의 일반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16개 시도별로 1차 층화하고 7개 특별 광역시를 제외한 9

개 도 지역은 동부와 읍면부로 나누어 2차 층화하여 조사한 자료이다. 노인실태조사는 법정조사로 통계청으로부터 승인(승인번호 제11771호)을 받아 실태조사가 진행되며 보건복지부에서 조사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 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주민의 신뢰와 협조하에 진행되었다. 총 10,451명을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 중 죽음준비에 관한 문항에 결측이 있는 170명을 제외한 총 10,281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노인실태조사의 설문내용 중 인구 사회학적 요인, 건강 관련 요인, 삶의 만족도, 죽음준비와 관련된 변수를 선정하였다.

2.3.1 죽음준비

죽음준비는 ‘귀하께서는 죽음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셨습니까?’ 라는 문항에서 수의, 묘지(납골당 포함), 상호회 가입, 유서작성, 죽음준비 교육 수강 등의 준비여부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죽음에 대비하여 어느 하나라도 준비를 하였다고 표기한 노인은 죽음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어느 하나도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2.3.2 인구 사회학적 요인

인구 사회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 교육연한, 가구 형태, 결혼상태, 경제 수준을 포함하였다. 연령은 65~74세, 75세 이상으로 재분류하였고, 거주지역은 동, 읍면으로 구분된 변수를 사용하였다. 교육연한은 초졸 이하, 중졸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가구 형태는 노인 부부가구, 독거가구, 자녀동거노인가구, 기타 노인가구로 재분류하여 사용하였다. 결혼상태는 유배우자, 사별, 기타(미혼, 이혼, 별거)로 분류하여 사용하였고 경제 수준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적 생활수준으로 ‘매우 낮다’에서 ‘매우 높다’의 5점 척도로 분류한 변수를 낮음, 보통, 높음의 3점 척도로 재분류하여 사용하였다.

2.3.3 건강 관련 요인

건강 관련 요인은 우울,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수, 활동 제한을 포함하였다. 우울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

해 단축형 우울척도(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GDS)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0점에서 15점으로 이중 8점 이상이면 우울에 해당된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귀하의 평소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을 좋음, 보통, 나쁨으로 분류하였고, 만성질환 수는 질병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질환 총 수를 기준으로 1개 이하, 2~3개, 4개 이상으로 범주화하였다. 활동제한은 ADL 또는 IADL의 조사에서 어느 한 개의 항목에서라도 ‘부분 도움’, 또는 ‘완전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활동 제한이 있는 것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활동 제한이 없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2.3.4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삶의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건강상태, 경제상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회·여가문화 활동, 친구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의 6개 문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각 문항 당 매우 만족에서 전혀 만족하지 않음으로 5점 척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의 세 분류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단, 배우자의 관계 만족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 없음의 항목(0)을 범주에 추가하였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생존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어 생존자녀 없음(0)의 항목을 범주에 추가하였다. 각 항목에서 점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항목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4 자료 분석

노인실태조사 자료는 층화집락추출법에 의해 표본 추출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한 가중치를 지정하여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죽음준비 실태는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고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죽음준비의 차이는 χ^2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죽음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 사회학적, 건강 관련 특성 및 삶의 만족도 요인 중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확인된 변수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죽음준비 실태

대상자의 10,281명중에서 6,403명(62.3%)은 수의, 묘지, 상조회 가입, 유서작성, 죽음준비교육과 같은 죽음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으며, 3,877명(37.7%)은 다섯 종류 중 어느 한 종류 이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종류 중 한 종류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28.9%, 두 종류 7.4%, 세 종류 1.3%, 네 종류 0.06%, 다섯 종류 모두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0.04%로 나타났다. 준비 유형별로 보면, 대상자의 77.1%에서 묘지를 준비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뒤를 이어 수의가 29.8%, 상조회 가입이 17.8%, 죽음준비교육은 1.6%, 유서작성은 1.3%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Type of Death Preparation of Subjects (N=3,877)

Type	frequency*	response(%)*	case(%)
Cemetery	2,989	60.4	77.1
Shroud	1,154	23.3	29.8
Subscription to mutual aid societies	690	13.9	17.8
Death preparation education	63	1.3	1.6
Signing a will	52	1.1	1.3

*Multi response

3.2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죽음준비 차이

전체 조사 대상 노인 10,281명중에서 3,877명(37.7%)이 죽음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서는 여자가 2,348명(39.2%), 남자가 1,529명(35.6%)으로 여자 노인이 죽음준비가 높았다($\chi^2=13.74, p<.001$). 연령별로 보면 75세 이상에서 1,965명(47.1%), 65-74세가 1,912명(31.3%)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죽음준비도가 높았다($\chi^2=264.45, p<.001$). 거주지역에 따른 죽음준비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1,093명(45.4%)으로 동에 거주하는 노인의 2,784명(35.4%)보다 유의하게 높았다($\chi^2=78.53, p<.001$). 교육수준은 중졸이상 노인이 1,518명(39.2%),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2,359명(36.8%)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죽음준비가 높았다($\chi^2=6.23, p=.013$). 결혼상태는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이 1,488명

(42.7%)으로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2,312명(36.5%), 기타(미혼, 이혼, 별거)의 경우가 77명(16.8%)으로 가장 죽음준비가 낮았다($t=125.65, p<.001$). 경제상태는 높다가 181명(55.2%), 보통이다가 2,087명(43.1%), 낮다가 1,608명(31.5%)으로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죽음준비가 높았다($t=187.15, p<.001$). 우울하지 않는 노인이 2,702명(39.3%)으로 우울한 노인의 1,175명(34.5%)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chi^2=22.47, p<.001$), 활동 제한이 있는 노인이 982명(43.4%), 제한이 없는 노인이 3,123명(36.6%)으로 죽음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9.08, p<.001$).

삶의 만족도에서는 경제수준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노인이 783명으로 50.0%($t=224.85, p<.001$), 배우자와의 관계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노인이 1,645명으로 37.8%($t=21.73, p<.001$), 자녀와의 관계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노인이 2,945명으로 42.0%($t=192.10, p<.001$), 사회활동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노인이 1,550명으로 43.3%($t=78.04, p<.001$), 친구 및 지역사회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노인이 2,356명으로 42.3%($t=108.75, p<.001$)였으며 죽음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죽음준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대상자의 죽음준비와 관련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χ^2 -test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변수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거주 노인의 죽음준비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결혼상태, 경제수준, 활동 제한과 삶의 만족도가 확인되었다.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1.13배(CI=1.02-1.25), 75세 이상 노인이 65-74세 노인보다 2.08배(CI=1.90-2.28),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동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1.32배(CI=1.21-1.45), 중학교 졸업이상 노인이 초등학교 졸업이하 노인보다 1.29배(CI=1.16-1.42), 미혼, 이혼, 별거 상태의 노인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2.20배(CI=1.50-3.22), 사별한 경우 2.12배(CI=1.58-2.84), 경제수준이 증가할수록 1.24배(CI=1.13-1.36), 활동 제한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1.25배(CI=1.11-1.40) 죽음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다. 삶의 만족도에서는 경제적 수준에 만족할수록 1.26배(CI=1.17-1.35),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1.34배(CI=1.25-1.43), 친구 및 지역사회에 만족할수록 1.19배(CI=1.10-1.28) 죽음준비도가 증가하였다.

Table 2. Death Prepar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0,281)

Variables	Categories	prevalence			χ^2	p
			yes n(%)	no n(%)		
Total		37.7	3,877(100)	6,403(100)		
Gender	Male	35.6	1,529(39.4)	2,763(43.2)	13.74	<.001
	Female	39.2	2,348(60.6)	3,639(56.8)		
Age(yr)	65-74	31.3	1,912(49.3)	4,199(65.6)	264.45	<.001
	≥75	47.1	1,965(50.7)	2,204(34.4)		
Inhabited area	Urban area	35.4	2,784(71.8)	5,087(79.4)	78.53	<.001
	Rural area	45.4	1,093(28.2)	1,316(20.6)		
Education	≤Elementary school	36.8	2,359(60.8)	4,053(63.3)	6.23	.013
	≥Middle school	39.2	1,518(39.2)	2,350(36.7)		
Marital status	With spouse	36.5	2,312(59.6)	4,026(62.9)	125.65	<.001
	Bereaved	42.7	1,488(38.4)	1,997(31.2)		
	Others(unmarried, divorced, separation)	16.8	77(2.0)	380(5.9)		
Living status	Alone	38.8	928(23.9)	1,462(22.8)	5.34	.148
	With Spouse	37.5	1,725(44.5)	2,870(44.8)		
	With Children	37.8	1,088(28.1)	1,794(28.0)		
	Others	32.9	136(3.5)	277(4.3)		
Subjective economic status	Low	31.5	1,608(41.5)	3,501(54.7)	187.15	<.001
	Middle	43.1	2,087(53.8)	2,755(43.0)		
	High	55.2	181(4.7)	147(2.3)		
Depression	Yes	34.5	1,175(30.3)	2,231(34.8)	22.47	<.001
	No	39.3	2,702(69.7)	4,172(65.2)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37.5	1,250(32.2)	2,080(32.5)	4.29	.117
	Moderate	39.4	969(25.0)	1,490(23.3)		
	Bad	36.9	1,658(42.8)	2,833(44.2)		
Number of chronic disease	0-1	37.0	1,153(29.7)	1,963(30.7)	2.75	.253
	2-3	37.4	1,669(43.0)	2,790(43.6)		
	≥4	39.0	1,055(27.2)	1,650(25.8)		
Restriction of activity	Limit	43.4	754(19.4)	982(15.3)	29.08	<.001
	No limit	36.6	3,123(80.6)	5,421(84.7)		
Life satisfaction health status	Satisfied	39.4	1,198(30.9)	1,843(28.8)	5.84	.054
	fair	37.6	1,013(26.1)	1,684(26.3)		
	Unsatisfied	36.7	1,665(43.0)	2,877(44.9)		
Economic status	Satisfied	50.0	783(20.2)	782(12.2)	224.85	<.001
	fair	42.6	1,348(34.8)	1,819(28.4)		
	Unsatisfied	31.5	1,746(45.0)	3,802(59.4)		
Relationship with spouse	Satisfied	37.8	1,645(42.4)	2,709(42.3)	21.73	<.001
	fair	34.1	556(14.3)	1,074(16.8)		
	Unsatisfied	31.4	111(2.9)	243(3.8)		
Relationship with children	None	39.7	1,565(40.4)	2,377(37.1)	192.10	<.001
	Satisfied	42.0	2,945(76.6)	4,066(63.5)		
	fair	30.7	687(17.7)	1,554(24.3)		
Social leisure activity	Unsatisfied	25.8	203(5.2)	584(9.1)	78.04	<.001
	None	17.4	42(1.1)	199(3.1)		
	Satisfied	43.3	1,550(40.0)	2,027(31.7)		
Relationship with friends and neighborhood	fair	35.7	1,433(37.0)	2,576(40.2)	108.75	<.001
	Unsatisfied	33.2	894(23.1)	1,800(28.1)		
	Satisfied	42.3	2,356(60.8)	3,217(50.2)		
Relationship with friends and neighborhood	fair	32.7	1,140(29.4)	2,342(36.6)	108.75	<.001
	Unsatisfied	31.1	381(9.8)	844(13.2)		

Table 3. Factors Influencing on Death Preparation

(N=10,281)

Variables	Categories	adjusted OR	95% CI	p
Gender(reference group: Male)	Female	1.13	1.02-1.25	.016
Age(ref: 65-74)	≥75	2.08	1.90-2.28	<.001
Inhabited area(ref: Urban area)	Rural area	1.32	1.21-1.45	<.001
Education(ref: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1.29	1.16-1.42	<.001
Marital status(ref: Others(unmarried, divorced, separation))	With spouse	2.20	1.50-3.22	<.001
	Bereaved	2.12	1.58-2.84	<.001
Economic status		1.24	1.13-1.36	<.001
Depression(ref: no)	yes	0.96	0.86-1.06	.417
Restriction of activity(ref: no limit)	Limit	1.25	1.11-1.40	<.001
Life satisfaction_Economic status		1.26	1.17-1.35	<.001
	Relationship with spouse	0.92	0.83-1.01	.102
	Relationship with children	1.34	1.25-1.43	<.001
	Social leisure activity	1.06	0.99-1.13	.063
	Relationship with friends and neighborhood	1.19	1.10-1.28	<.001

여성 노인이, 연령이 많을수록, 동지역보다 읍면 지역에 거주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했을 때,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활동 제한이 있을수록 죽음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에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만족할수록, 친구 및 지역사회에 만족할수록 죽음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14년 우리나라 전국노인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죽음준비 유형과 죽음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차 분석함으로써 추후 관련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37.7%가 죽음준비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죽음준비 유형으로 묘지 마련, 수의 준비, 상조회 가입 등의 의례적 준비로 확인되었으며 죽음준비 교육과 같은 정신적 죽음준비는 1.6%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4] 결과에서 죽음준비에 대해 43.0%가 긍정적이며, 죽음준비에 대한 유형으로 수의나 영정사진 준비 등의 의례적인 죽음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죽음준비는 의례적 준비가 정신적 준비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의례적 준비는 우울 정도를 높였으나[5], 죽음에 대한 정

신적 준비는 죽음을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역으로 우울 정도를 낮추며 성공적 노화로 자아 통합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5].

또한 노인들이 죽음준비 교육을 받거나 동영상 관람이나 유서작성, 입관체험 등 정신적 죽음 준비를 많이 할수록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3,5-9]이 감소하며, 생활만족도를 높이는[3-4,10-11] 효과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추후 죽음준비에 대한 중재에서 정신적 준비가 절대적으로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죽음준비 교육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나라 노인 관련 기관에서는 죽음준비 교육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실태[4]임을 볼 때, 추후 지역사회 유관기관에서는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죽음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결혼상태, 경제수준, 활동 제한, 삶의 만족도로 확인되었다. 성별은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죽음준비가 1.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길기 때문에 여성 노인이 죽음준비를 더 많이 할 것이라 예측된다. 연령에서는 75세 이상 노인이 65세에서 74세 이하 노인보다 죽음준비가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노인들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죽음준비도가 높다는 여러 선행 연구결과[2,17]와 일치하였다. 연령이 많을수록 노인들이 죽음에 가까우므로 죽음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 거주지역이 읍면에 거주하는 노인이 동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1.32배 죽음준비도가 높았다. 이는 거주지역에 따른 죽음준

비를 확인한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 죽음준비가 대개 수의나 묘지 준비 등 의례적 준비인 것을 본다면 읍면지역 노인들에게서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교육수준이 중학교 이상 졸업한 노인이 초등학교 졸업이하 노인보다 1.29배 죽음준비가 높았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태도가 수용적인 연구결과[15,18-20]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Kim과 Han [17]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인식은 높았으나 죽음준비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이는 Kim과 Han [17]의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가 30대 이상의 성인이라 연구대상자의 연령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 추측된다. 본 연구결과 결혼상태에서 미혼이나 이혼, 별거한 노인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2.20배, 배우자가 사별한 경우가 2.12배 죽음준비도가 높았다. 이는 배우자가 사별한 노인일수록 죽음준비도가 높아[19]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결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죽음준비도가 1.24배 높았다. 이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4]. 그러나 자신의 경제상태를 좋지 않게 평가할수록 죽음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17] 본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한편 Moon과 Nam [5]의 연구에서 경제상태가 나쁠수록 정신적 죽음준비를,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의례적 죽음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이러한 경제상태와 죽음준비에 대한 관계는 그 역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결과, 활동 제한이 없는 노인에 비해 활동 제한이 있는 노인이 죽음준비도가 1.25배 높았다. 이는 활동 제한이 있는 사람이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21]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사회생활이나 여러 가지 여건의 활동 제한을 받는 노인이 죽음을 더 가깝게 여기기 때문에 죽음준비를 더 많이 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삶의 만족도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1.26배), 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1.34배), 친구 및 지역사회에 만족할수록(1.19배) 죽음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죽음준비를 많이 하며 [2], 죽음불안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와는[15] 본 연구결과와 상통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노인의 죽음준비에 대한 영향 변수들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죽음준비가 부족한 노인들이 자신의 죽음준비를 할 수 있는 사회제도 및 환경적 여건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 죽음준비에 대한 조사 항목이 제한적이었기에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제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추후 노인실태조사에서 보다 다각적인 측면의 문항이 포함된다면 보다 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한 층화집락표본추출법으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죽음준비 유형과 죽음준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 관련 기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정신적 죽음준비를 강화한 죽음준비 교육과 같은 대책의 저변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경제 수준이 낮고, 활동 제한이 있으면서 도시에 거주하는 남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죽음준비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중재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2014년 실시된 노인실태조사는 대부분 의례적 죽음준비 내용이 조사되었으나 추후에는 정신적 죽음준비에 대한 내용을 보완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T. Oh, C. G. Kim, "Effects of Death Education on Attitude toward Death and Depression in Older Adults", *Journal of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9, No. 1, pp. 51-69, 2009.
UCI: <http://uci.or.kr/G704-000573.2009.29.1.006>
- [2] S. Chung, S. H. Kim, M. J. Koo, "The Relationship between Death Related Factors and Death Preparation: A Comparison of Pre-elderly and Baby-boomer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37, No. 1, pp. 131-153, 2014.
UCI: <http://uci.or.kr/G704-000152.2014.37.1.001>
- [3] S. H. Kim, Y. M. Song, "The effects of death education for the elderly on lif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mediating effect of death anxiet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3, No. 1, pp. 190-219, 2013.
DOI: <https://dx.doi.org/10.15709/hsrw.2013.33.1.190>
- [4] M. S. Kim, C. K. Ha, H. S. Kim,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the View of the Afterlife and Readiness for Death",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6, No. 1, pp. 111-136, 2011.
UCI: <http://uci.or.kr/G704-001932.2011.16.1.010>
- [5] N. S. Moon, K. M. Na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ath Preparation of the Aged and Successful Aging: Focusing on Depression and Death Anxiety as Mediator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8, No. 4, pp. 1227-1248, 2008.
UCI: <http://uci.or.kr/G704-000573.2008.28.4.010>
- [6] I. S. Kim, G. R. Kim, H. S. Shin, H. C. Seo, "A

- meta-analysis of effectiveness of death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21, No. 2, pp. 3-23, 2016.
UCI: <http://uci.or.kr/G704-001334.2016.21.2.005>
- [7] T. Y. Kil, “The Effects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on Death Anxiety and Self-integration of Elderly People in Urban and Rural Complex Areas”,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Society*, Vol. 27, No. 1, pp. 95-124, 2017.
UCI: <http://uci.or.kr/I410-ECN-0102-2018-300-000563966>
- [8] M. K. Byun, H. J. Hyun, S. J. Park, E. Y. Choi, Efficacy of Well-dying Program for Meaning of life, Self-efficiency, and Successive aging in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10, pp. 413-422,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0.413>
- [9] S. H. Kim, S. W. Byun, Analysis of the trends of research education on death,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2, No. 12, pp. 469-475, 2014.
DOI: <https://dx.doi.org/10.14400/JDC.2014.12.12.469>
- [10] Y. M. Song, K. Yoo, “A study on effects of death education on death anxiety and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older adult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54, No. 54, pp. 111-134, 2011.
UCI: <http://uci.or.kr/G704-001512.2011..54.009>
- [11] E. M. Hyun, “Effect of Death Educ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7, pp. 4220-4228, 2014.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4.15.7.4220>
- [12] S. H. Cho, Y. S. Jung, “A Study on the Effects of Death Education and Death Anxiety in Older Adults: Mediation Effects of Ego-integrity”,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70, pp. 319-348, 2015.
UCI: <http://uci.or.kr/G704-001512.2015..70.011>
- [13] H. H. Sim, “A study on the cognition and attitude on well-dying in undergraduate students-Q 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9, no. 2, pp. 233-243, 2012.
DOI: <https://doi.org/10.7739/jkafn.2012.19.2.233>
- [14] C. Ha, H. Kim, “The Elderly’s Self-Esteem and View of the Afterlife: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Satisfaction and the Level of Death Prepara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52, No. 4, pp. 325-336, 2014.
DOI: <https://dx.doi.org/10.6115/fer.2014.028>
- [15] J. W. Lee, Y. M. Woo, “The Influence of Accepting Attitude toward One’s Own Death on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Medical Ethics*, Vol. 19, No. 2, pp. 225-243, 2016.
UCI: <http://uci.or.kr/G704-001456.2016.19.2.001>
- [16] Y. J. Jeong, N. Y. Yu, B. A. Kim, H. J. Shin, Y. S. Chong, “A Meta-Analysis on Variables Related with Successful Aging”,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4, No. 4, pp. 781-797, 2014.
UCI: <http://uci.or.kr/G704-000573.2014.34.4.001>
- [17] S. Kim, J. Han “Adult’s Death Perception, Death Preparation, and Death Anxiet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Vol. 5, No. 1, pp. 23-48, 2012.
UCI: <http://uci.or.kr/I410-ECN-0102-2013-320-002122561>
- [18] J. H. Kim, K. H. Min, “Predictors of Death Attitude and Death Competency among the Elder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24, No. 1, pp. 11-27, 2010.
DOI: <https://doi.org/10.21193/kjspp.2010.24.1.002>
- [19] M. Pinquart, S. Sörensen, “Preparation for death and preparation for care in older community-dwelling adults”,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Vol. 45, No. 1, pp. 69-88, 2002.
DOI: <https://dx.doi.org/10.2190/5K9J-C320-221Q-KPH6>
- [20] O. S. Kim, S. H. Lim, “Effects of Perception of Death, Well-Dying, on Terminal Care Attitud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3 pp. 63-71,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3.63>
- [21] D. I. Templer, “Death anxiety as related to depression and health of retired persons”, *Journal of Gerontology*, Vol. 26, No. 4, pp. 521-523, 1971.
DOI: <https://dx.doi.org/10.1093/geronj/26.4.521>

이 가 언(Ga-Eon Lee)

[정회원]



- 1994년 8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0년 8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1년 3월 ~ 현재 : 동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장기요양, 노인간호

전 혜 정(Hye-Jeong Jeon)

[종신회원]



- 2015년 2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수료)
- 1992년 5월 ~ 현재 : 동아대학교 병원 간호사

<관심분야>
건강 증진, 다문화

유 정 옥(Jung-Ok Yu)

[정회원]



- 2004년 8월 :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교육 (교육학석사)
- 2014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동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청소년 건강형태, 대사증후군 예방